

## 올바른 예배 (2)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복음-흠정역 4: 21-24]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 3. 영으로 드리는 예배

다음으로 주님께서서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되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뿐 아니라 유대 땅에도 있었고 이방 나라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참되게 경배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참된 예배의 정의를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은 이를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혼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이해가 갑니까? 이는 마치 불교나 무속 종교에서 귀신을 불러 하는 의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표현이 아닌가요? 크리스찬이 산신령을 불러 예배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경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미 앞서서 살펴 보았지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나 그림을 세워 놓고 그 앞에서 기도나 찬송이나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종파에서 이러한 우상을 두고 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러한 교회나 절이나 교파에서 조속히 이탈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로 가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경배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 산에 올라가 40 일간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개를 받아서 산 중턱에 대기하고 있던 조수 여호수아와 함께 하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지체되자 그 기간 중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아론의 인도에 따라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 32:6]”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물이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는 소음을 듣고 여호수와는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출 32:17]”라고 판단했을만큼 거기에는 큰 소란과 광란으로 충만한 상태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출 32:18]”라고 판단했습니다. 모세가 듣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풍습을 따라 송아지 상 앞에서 이집트인들이 불렀던 송아지 숭배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 장에서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 70 인이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하였고, 모세는 율법 책으로 백성들이 듣는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출 24:1-5]. 그렇게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경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거룩한 언약을 모두 잊어 버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이집트 방식으로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알면서 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 이유로서 모세가 극노하여 그들 앞에서 십계명을 세긴 돌판들을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극도의 진노를 표명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경배하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거룩함이 우리 각자와 회중에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음률과 흥분과 광란으로 날뛰는 행위는 비록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집트]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28-29]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시에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창조주이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입고 경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역대상 16:28-29]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예배의 모든 행위가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는 재미로 하는 행위도 아니요,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요, 스트레스 풀기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분은 영이시므로 거룩한 영을 지닌 백성들이 거룩한 행위와 말씀과 기도와 노래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고 찬양하는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가 이런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만한 예배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겸손한 심령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 내어 놓고 점검 받으시기 권면합니다.

참된 교회의 예배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만 나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예배가 거룩함을 잃어 버리면 과연 주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요?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면 여러 이스라엘 왕들이 이집트, 앗시리아,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의 풍습에 따라 백성들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하여 “그가 주 앞에 악한 일을 행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물결 따라 가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교회이며 주님 오실 때에 책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음으로, “진리안에서 드리는 예배[worship in truth]”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개역개정판은 이 부분을 “진정으로” 라고 잘못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세로 하기만 하면 올바른 예배입니까? 불교 신자들과 힌두교인들과 모슬렘들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12 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모슬렘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루에 너댓번이나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을 지켜 행하고, 코란의 모든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직접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부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 까지도 바쳐서 자살 폭탄을 터뜨려 미국인들을 죽이고 자신들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불에 도착한지 한달도 안되어 우리의 동료 세명과 호송 군인 5 명이 그렇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모슬렘 극단주의자들이 코란을 진정으로 믿어서 9.11 테러를 범하여 3,000 여명이 죽고 6,000 명이 부상 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는 이러한 신앙 행위가 과연 참된 예배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예수님의 도덕을 마음에 세기는 행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참 목자요,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진리, 즉 예수님의 영과 말씀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경배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 행위에 희생된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2 천여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드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분의 피로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이 피에 대한 감사와 기념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시간을 차지하는 대부분은 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 분의 삶과 가르침을 교육하는 바른 설교가 있어야 하고, 그 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간증과 감사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주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의 논리가 아니고, 신비주의적, 철학적 수사와 언어적 유희가 되어서도 아니됩니다. 설교 말씀은 똑바로 성경의 모든 부분에 분명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주님의 피와 부활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기복주의적 회유가 있어서도 아니됩니다. 주님과 그 제자들은 한번도 그런 설교를 한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중심에 주 예수님의 모범, 가르침, 달려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습, 오랜 교회의 잘못된 전통이나 오류, 재물과 세상적 출세의 약속, 뉴 에이지적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주 예수님과 함께 비빔밥으로 섞어서 제공하는 예배는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 5. 결어

오늘날 기독교는 거룩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의 회복은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 생활에서 먼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에서 행하는 주 행위인 예배가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교훈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거룩함을 회복하여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아멘.